

국제교류활동

1) 국제 세미나 및 행사

국제교류 활동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일편집간부 세미나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국제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편협도 국제교류 활동을 다각화하게 됐다. EU와는 서로 교환 방문하며 세미나를 개최, 상호 이해를 높였다. 또 UN기구들이 공식 후원한 국제환경저널리스트대회를 서울서 개최하는 등 편협의 국제교류활동은 횡수와 내용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초기 국제교류활동은 드문드문 있었던 상호 초청방문 수준이었다. 그것도 상대국이 일본 자유중국 월남 수준이었다. 그런 면에서 1990년대 들어 세미나 등 학술성격이 가미되고, 유럽까지 확대된 된 국제 교류활동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1)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는 1966년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양국 간의 회의 또는 세미나를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게 할 목적에서 만든 것이었다. 이 세미나는 1969년부터 한국신문연구소가 주관하다 1983년에 편협으로 이관돼 해당 연도에 가장 상징적인 주제를 선정, 진행하고 있다.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횟수	일시	장소	주제
1	66. 11. 7	東京	
2	67. 9. 26	서울	· 정치와 방위문제 (한일간 3개 주제)
3	68. 6. 24	東京	· 김희로 사건 · 조선대학認可문제 ·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사건
4	69. 5. 14	서울	·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선진국의 역할과 후진국의 입장 · 한일경제교류와 그 문제점
5	69. 11. 4	福岡	· 아시아의 안보와 지역개발
6	70. 8. 31	大阪	· 신문문화면 제작자의 입장에서 본 한일교류
7	70. 11. 13	서울	· 일본교육제도의 변천과 전망 · 한일양국의 생활문화
8	71. 9. 20	서울	· 국제보도와 국가이익의 문제 · 한일양국관계보도의 재검토
9	72. 2. 21	仙台	
10	72. 11. 15	서울	· 한일양국의 전통문화와 보도의 문제 · 보도를 통해 본 한일문화교류의 현상과 전망
11	73. 5. 14	名古屋	· 한일양국간의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 문화를 둘러싼 보도상의 제문제
12	74. 7. 24	東京	· 한일양국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와 보도
13	75. 9. 10	서울	· 한국인론 · 일본인론
14	76. 7. 21	熊本	· 지역 및 국제뉴스를 둘러싼 문제 · 기자교육 및 훈련
15	77. 6. 8	서울	〈신문지상의 문제점〉 · 읽히는 지면을 만들기 위한 노력 · 편집부의 현상과 금후의 방향 · 편집기자 양성문제
16	78. 5. 23	東京	·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신문제작상의 문제 · 한· 일관계에 있어서 보도상의 문제점
17	79. 5. 10	부산	· 한일교역증진과 경제협력 문제

횟수	일시	장소	주제
18	80. 11. 5	東京	· 1980년대의 한일관계-아시아시대에 있어서의 일본과 한국의 역할
19	81. 10. 27	서울	· 한일협력의 개선과 언론의 역할
20	82. 5. 10	東京	· 한일양국 신문편집상의 과제
21	83. 10. 25	서울	· 신문편집상의 제문제
22	84. 10. 23	東京	· 사회면 제작의 새방향
23	85. 10. 17	서울	· 사회변화와 사회면 보도
24	86. 10. 28	東京	· 문화보도의 문제점
25	87. 10. 19	서울	· 가정면 제작의 문제점 · 문화면 편집의 문제점
26	88. 10. 25	東京	· 아시아 경제권의 장래와 경제면 제작
27	89. 10. 23	서울	· 한일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 · 동아시아의 장래와 한일경제
28	90. 10. 29	東京	· 과학기술과 매스컴의 역할
29	91. 10. 28	서울	·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매스컴의 역할
30	92. 10. 2	東京	· 냉전후의 세계-아시아와 한일
31	93. 10. 18	서울	· 전환기의 정치와 미디어의 역할
32	94. 10. 26	東京	· 21세기의 한일관계와 보도의 역할
33	95. 10. 24	서울	· 21세기의 한일관계와 보도의 역할
34	96. 10. 21	東京	· 월드컵 공동주최와 스포츠보도
35	97. 10. 8	제주	· 21세기의 한일관계와 보도의 역할
36	98. 10. 28	東京	· 21세기의 한일관계와 보도의 역할
37	99. 10. 21	제주	· 한-일간의 문화교류와 미디어의 역할
38	2000. 11. 1	東京	· 한-일간의 경제협력과 미디어의 역할
39	2002. 10. 30	東京	· 월드컵이후의 한일관계
40	2003. 10. 28	제주	· 북한을 바라보는 한일의 시각
41	2004. 10. 29	東京	· 북한을 보는 한일의 시각
42	2005. 10. 26	서울	· 한일관계 재정비 방향과 언론의 역할
43	2006.10. 25	東京	· 한일관계 재정비 방향과 언론의 역할

(2) 한국-EU 언론인 세미나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EU 집행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제1회 한국-EU언론인 세미나가 1993년 11월 29일부터 이틀간 브뤼셀 EU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것을 계기로 서로 오가며 모두 5차례 개최됐다.

제1회 세미나에는 한국측에서 南時旭 편집부회장(동아일보 상무)을 단장으로 金建鎭국제위원장(부단장 중앙일보심의실장) 등 14명이, EU집행위원회측에서 질 아누이 주한 EU대표부 대표 클린 위커 오디오비주얼정보담당국장이, 언론인측에서는 알빈솔드 유럽신문발행인협회회장을 포함 다수의 브뤼셀 주재 유럽언론인들이 참가했다.

칼로스 코스타 EU집행위원회 기획실장은 세미나 개막연설에서 “이 세미나가 한국이 EU에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는지 또한 EU가 한국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단장과 함께 공동사회를 본 질 아누이 주한 EU 대표부 대표는 세미나를 끝내면서 “EU-일본 언론인세미나와는 아주 다른 매우 솔직하고 진지한 한국 언론인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양측 이해에 매우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에서 韓南圭 邊龍植 尹汝辰 씨 등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유럽에서의 EU의 위상 △한국과 EU언론-동반자 관계의 진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모색 △한국과 EU언론의 현안 등 3가지였다.

한국-EU 언론인 교류계획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부장단의 EU 체재비용은 EU측이, 왕복항공료와 기타 비용은 편협측이 부담했다. EU 기자대표들이 방한할 때는 그 반대였다.

◇참가자

△단장=南時旭(편집부회장 동아일보 상무)△부단장=金建鎭(편집국제위원장 중앙일보심의위원실장)△간사=邊龍植(조선 경제부장)△참가자=李承九(경향 경제부장) 崔熙助(동아 경제부장) 鄭信樸(서울 경제부장) 韓南圭(중앙 편집부국장) 朴武(한국 경제부

장) 尹汝辰(매일경제 논설위원) 邊道殷(한국경제 논설위원실장) 李正明(연합통신 경제부국장) 沈宜杓(KBS 경제부장) 鄭秉秀(MBC 해설위원) 姜昌勳(매일신문 경제1부장) 李尙根(편협 사무국장)

제2회 한국-EU(유럽연합) 언론인 세미나는 1994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호텔 신라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안병훈 편협회장 남시욱부회장 김건진 국제위원장 등 한국측 대표 31명과 리크 빙켈 네덜란드 헤트 피난시엘레 다흐블라트 紙 기자 등 EU측 대표 12명이 참가했다. 세미나 주제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국제교역과 세계무역기구' 'EU와 한국간 직접투자의 현황과 전망' '미디어의 미래 전자와 인쇄매체' 등이었다.

김정수 중앙일보 전문위원과 덴마크 뵈르센 紙 하콘 리더 기자가 1주제, 申東旭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과 네덜란드 헤트 피난시엘레 다흐블라트 紙 리크 빙켈 기자가 제2주제, 尹錫弘 조선일보 독자부장과 독일 도이체 벨레 紙 헤리베르트 코르프마허 기자가 제3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7일 오전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후에는 통일전망대를 방문, 한반도 분단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 3회 한-EU 언론인세미나는 1995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한국과 EU의 보도비교, EU와 동북아시아, EU의 기능과 통합 후의 단계, 한국의 실정과 당면과제, 한-EU 간의 경제무역관계, 한국의 세계화 과정과 한반도의 장래, 냉전의 유산물 한반도의 장래, 국제관계와 언론인 등이 세미나 주제였다.

◇주제 및 주제발표자

△Niels Jorgen Thogersen(유럽위원회 홍보담당관)=EU의 국가기능과 유럽통합의 다음 단계 △신동욱(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최근의 한국실정과 직면과제 △

P.Westerlund(유럽위원회 대외관계 극동담당관)=EU와 동북아시아 △H.E.Jean-Pierre Leng(주 제네바 국제기구 EC 수석대표)=한-EU 간의 다변적 경제 무역관계
 △장만순(주 EU 한국대사)=한국의 세계화 과정과 한반도의 장래 △박성조(베를린 프레이 대학 교수)=마지막 냉전 유산물 한반도의 장래△문명호(편협 국제위원장 동아일보 논설위원)=한국과 EU의 보도비교△Kim Minke Aarhus(덴마크언론학교 교장)=국제관계에서의 공공이익과 언론인 훈련

◇한국측 참가자

△李文熙(단장 편협부회장 한국일보 전무)△文明浩(부단장 편협 국제위원장)△金容彦(경향신문 논설위원)△林春雄(서울신문 논설위원)△金永河(조선일보 논설위원)△張鉉俊(중앙일보 국제경제부장)△張炳琪(KBS TV 편집부장)△柳熙根(MBC 보도제작부국장)△申東旭(매일경제 논설위원)△申英燮(한국 경제논설위원)△權俊惠(부산일보 국제부장)△朴鉉案(연합통신 경제1부장)△李尙根(편집인협회 사무국장)

제4회 한국-EU 언론인 세미나는 1996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호텔 신라에서 '한-EU 간의 바람직한 미래상' 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張鉉俊논설위원(중앙일보)이 'ASEM에 의한 새로운 시대와 EU와 한국간의 경제협력' 尹浩美부국장(조선일보)은 '한국과 EU의 문화 협력 미디어의 할 일', 鄭逸和편집위원(한국일보)은 '한반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의 전망' 이란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EU측에서는 독일의 레이나르트 드레프테교수(뉴캐슬대)가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대한 EU의 견해' 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EU측 참가자 일행은 세미나에 앞서 판문점과 청와대를 방문했고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울산의 현대자동차공장을 시찰했다.

◇참가자

△투에 로르스테드(덴마크 주한 EU 대사)△한스 베리스트룀(스웨덴 다겐스 뉘헤테

르 紙 주필 단장)△레이나르트 드레프테(독일 뉴캐슬대 교수 주제발표)△미칼 야리 네르(덴마크 폴리티켄 紙 부국장)△닐스 위르겐센(덴마크 윌란스포스텐 紙 뉴스편집인)△앙겔라 쾰러(독일 디 프레세 紙 동아시아특파원 주일 여)△라이너 쾰러(독일 슈트 도이체 차이퉁 紙 아시아경제특파원 주일) △마르가레타 코파이니히(오스트리아 쿠리어 紙 유럽부장)△ RKM 크로처(네덜란드 데 텔레그래프 紙 주일특파원)△앤젤라 룡(아일랜드 아이리시 타임스 紙 외신부국장 여) △한스 반더 튀흐트(네덜란드 N R C 한텔스블라트 紙 동북아시아 특파원 주일)△올레 담키아에르 닐센(덴마크 벨링스케 티덴데 紙 편집인)△필리프 파케(벨기에 라이브레 벨지크 紙 아시아 태평양부장)△케빈 래퍼티(영국 더 가디언 紙 주일특파원)△귄터 슈미트 브레어(독일 도이체 벨레 紙 정치 경제부장)△카트린 테르피츠(독일 한텔스블라트 아시아 부장 여)

제5회 한국-EU언론인세미나는 1997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새 유럽 체제와 한반도' 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과 EU 각각 1명씩 기조연설을 했으며 한국측에서 3명, EU측에서 2명이 국제정치 경제 문화 등 세분야로 나누어 주제를 발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동양문화발달사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국대표단은 EU 경제교류, EU측 참가자들은 동양문화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EU측 문화분야 주제발표자(로제리오 마르틴스)는 동양문화는 일본에서 발달, 한국과 중국으로 전파됐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 한국측 뿐 아니라 동양문화에 이해가 깊은 EU 참가자들까지 당황케 했다. EU측 참가자들이 로제리오 마르틴스를 설득시키긴 했으나 한국문화의 유럽소개의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운 세미나였다.

◇세미나 주제 및 발표자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한국의 유럽관계에서의 영향(신영섭 한국경제논설위원)△한국 입장에서의 ASEM에 대한 전망(이재춘 주EU한국대사)△한국과 유럽 협력에 대한 문화적 전망(이문열 작가 세종대교수)△동북아안전보장-북한은 도전할 것인가(남

찬순 동아일보 논설위원)△아시아 유럽관계의 미래(로제리오 마르틴스)△통합정부 회의 구성후의 유럽통합진행상황(중앙 데 데우스 피네이루 ACP제국과 남아공화국과의 특별관계 및 긴밀관계증진의 유럽위원회위원)△유럽통합과 유럽단일통화기구에서의 영향(안토니오 데 소사 프랑코(포르투갈 재무장관)

◇연사

△정일화(편협 국제위원장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동익(주 포르투갈 주재 한국대사)
△투에 로르스테드(주한 EU 대표부 대사)

◇한국측 참가자

△단장=정일화(편협 국제위원장 한국일보 논설위원)△초청연사=이문열(작가)△발표=남찬순(동아일보 논설위원)신영섭(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간사=송희영(조선일보 경제부장)△참가=표완수(경향신문 국제부장)임영숙(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정수(중앙일보 전문위원) 김진기(KBS 해설위원) 박시용(매일경제 논설위원) 박향구(광주일보 논설위원) 박영규(연합통신 경제3부장)△사무국=오희정(국제담당)

◇EU측 참가자

△빔 부르멜만(NRC 한텔스블라트紙 아시아관 편집장 네덜란드 로테르담)△올레 담키아르(베를링스케 티텐터紙 외국통신원 덴마크 코펜하겐)△MS 잉에르 예에르호른(다겐스 뉴헤테르紙 외신편집장 스웨덴 스톡홀름)△닐스 유르젠센(모르게나비슨월난스포스텐紙 외신부장 덴마크 비뷔)△MS 마르가레타 코파이니(쿠리어紙 유럽문제 편집자 오스트리아 빈)△헤리베르트 코르프마허(도이치 벨레 라디오 브뤼셀국 벨기에 브뤼셀 유럽특파원)△MS 앙겔라 쾰러(베르리너 차이퉁紙 도쿄지국 극동특파원 일본 도쿄)△루트 크로이처(데 텔레그라프紙 도쿄지국 극동특파원 일본 도쿄)△MS 앤젤라 퉁(아이리쉬 타임스紙 외신데스크부팀장 아일랜드 더블린)△필리프 파케(라리브르 벨지크紙 亞太담 편집장 벨기에 브뤼셀)△MS 페리난다 로제로(인솔레24 오

래紙)△MS 카트린 테르피츠(한델스 볼라트紙 아시아 편집장 독일 뒤셀도르프)△플레밍 위첸(폴리티켄紙 외신편집장 덴마크 코펜하겐)

◇유럽위원회(EC)

△투에 로르스테드(주한 EC 대표부 대사 한국 서울)△MS 리뷔 단손(EC 공보실 한국담당관 벨기에 브뤼셀)△MS 마리에 로르스테드(세미나 연락관)

(3)국제환경저널리스트 대회

국제환경저널리스트대회를 1994년과 1997년 두차례 개최했다.

제6회 국제환경저널리스트 서울대회가 1994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세계 25개국 64명의 언론인과 의회지도자 종교인 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렸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글로벌포럼 매체위원회(위원장 조지 크립스키)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이상하)가 공동주최하고 유엔환경계획 유엔아동기금 유네스코유엔인구기금 유엔공보국 등 5개유엔산하기구가 공동후원했다. 서울대회 주제는 '환경위기와 언론의 역할' 이었다. 세계 환경기자들이 서울에 모여 지구환경위기극복을 위한 공동과제를 토론한 국제환경저널리스트대회는 국내 환경인식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 사무차장겸 유엔 환경계획(UNEP) 총재인 엘리자베스 다우즈웰 여사는 기조연설에서 "인구증가와 과소비 그리고 과학발달이 가져온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문화를 초월한 '하나의 지구가족'이라는 혁명적인 사고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李龍水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한국환경문제와 언론' 필립 완 유엔아동기금 수질 환경보건국장은 '깨끗한 물과 환경' 기타타니 가쓰히데 유엔인구기금 자문위원은 '인류생존 국제포럼' 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기간중 각국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가져온 심각한 환경 피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구문제 및 저개발국의 여성과 아동이 환경파괴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는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시각차가 있음을 재확인한 대회였다.

조직위는 대회 마지막 날인 16일 '결론과 제언'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빈약한 정보와 재정등을 이유로 그동안 환경 관련 뉴스가 소홀히 취급됐다"며 "대중을 교육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환경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일행은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대통령과 환담을 나눴으며 17일에는 DMZ를 시찰했다.

환경저널리스트대회는 1988년 미국 옥스퍼드에서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1989년(미국 메릴랜드주) 1990년(소련 모스크바) 1991년(이탈리아 플로렌스) 1994년(일본 오카야마)회의 등 그동안 다섯 차례 열렸다.

1997년도 국제환경저널리스트 서울대회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조남조)가 공동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었다. 주제는 '환경과 개발-조화를 위한 추구'였다. 세계 16개국에서 환경전문 언론인 30여명을 비롯한 환경전문가 엘리자베스 다우즈웰 UNEP총재 겸 유엔사무차장, 유엔관계자 20명이 참가했다.

다음은 세미나 주제와 발제자 지정토론자들이다.

◇제1주제△주제=환경과 개발의 이상적 조화 △발제자=폴 험프(보스턴 글로브 선임기자)△토론자=강찬수(중앙일보기자) 강웅선(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델리프 단(인터프레스서비스 UN 특파원) 닉 랜킨(BBC 선임 프로듀서) 잔 레인(오스트레일리아 방송 수석 프로듀서)◇제2주제△주제=환경과 개발의 조화, 그 현황△발제자=서상목(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회장) 장원(대전대학교수) 고리산카(UNICEF 환경 위생국장) 토어 브레빅(UNEP 공보국장)△토론자=조홍섭(한겨레 생활과학부장) 김인환(계명대 환경대학장) 타이론 아우구스트(The Sowetan 특집부장) 올라 보드리엔(NTV 해설위원) 고시오야(일본 문예춘추 뉴욕지국장)◇제3주제△주제=환경과 개

발의 조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토론자=최도영(MBC 뉴미디어국 프로듀서) 김형근(연합통신 외신 2부 기자) 마나나 자쿠아(라디오 Green Wave 이사) 아달베르토(Agencia Estado 편집인) 스콧 마텐이(컬럼비아대 교목) 이언 윌리엄스(NY 업저버 기자)

(4)제2차 아시아 유럽재단(ASEF) 편집인 원탁회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아시아유럽재단(ASEF)및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2000년 10월 18,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ASEF 언론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회 ASEF대회는 1997년 10월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다.

26개 ASEM 회원국 신문 방송 통신사 소속 언론인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론과 외교정책에 끼치는 언론의 영향'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언론의 역할-동티모르와 코소보 사태의 경우' '언론사 소유의 권한과 책임'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남중구(南仲九)편집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원탁회의는 세계화 흐름 속에 아시아와 유럽과는 물론 지구촌 모든 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새 세기의 문턱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언론은 국가 외교 정책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 외교정책은 결국 인류의 공익 공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세계 언론인들간의 교류접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외국 언론인 초청

(1)IPI 회원 초청

1960년 3월 하순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IPI 회원들을 4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공동으로 초청,

우리 언론계의 실태를 보여주는 한편 각 종 모임을 통해 현황을 설명했다.

(2)일본 언론인 초청

① 62년 일본 언론인 8명 초청

1962년 5월 한일양국 언론인 사이의 우의를 깊이 하는 한편 재건한국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일본신문 통신 방송관계 간부 8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한국 언론계를 비롯하여 부산 럭키화학, 판문점, 육사, 아시아 영화제, 산업박람회, 국악원, 이화여자대학 등을 시찰했다.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관, 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등 정부측 인사와도 만났으며, 5·16 혁명 기념식전에도 참석했다.

◇방한 일본언론인 명단

△仁尾一郎(朝日新聞 논설위원)△今井久夫(産業經濟新聞 논설위원)△枝松茂之(毎日新聞 편집국장)△森田善之助(日本經濟新聞 외신부장)△小川 優(재팬타임스 편집국장)△安齊義美(日本放送協會 해설위원)△安達鶴太郎(時事通信 제2편집국장)△笠井眞男(東京新聞 논설위원)

② 66년 일본신문협회 대표 등 13명 초청

1966년 4월 일본신문협회가 1964년 우리나라 편집간부를 초청한 데 대한 답례로 일본신문협회대표 등 언론계 중진급 인사 13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언론계, 산업시설, 육사 및 전방 군부대 등을 시찰하고 고적 등을 관람했다.

◇방한 일본언론인 명단

△上田常隆(日本新聞協會長, 毎日新聞 사장)△稻葉秀三(産經新聞 사장)△白石古京(京都新聞 사장)△山本正房(中國新聞 사장)△小林与三次(讀賣新聞 부회장)△織田稔(中部 日本新聞 편집 고문)△大森幸男(日本新聞協會 방송과장)△西村二郎(日本新聞協會 이사회위원장, 新潟日報 사장)△一力次郎(河北新聞 회장)△田中寛次(神戸新聞 사

장)△平田陽郎(愛媛新聞 회장)△西島芳二(朝日新聞 논설주간)△横田實(日本新聞協會 사무국장)

③ 67년 일본신문편집인 20명 초청

1967년 3월 한일양국 언론인 사이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일본신문협회의 희망에 따라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 동안 일본신문편집인 20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언론계를 비롯하여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고적 등을 관람했다.

◇방한 일본언론인 명단

△高田秀二(共同通信 편집국장)△天野歡三(朝日新聞 西部本社 편집국장)△筋仁藏(毎日新聞 편집국차장)△高桑幸吉(讀賣新聞 편집총무)△高田景次(秋田魁新聞 편집국장)△濱光兵衛(岩手日報 편집국차장)△花井清二良(神奈川新聞 논설부주필)△平野素邦(中部日本新聞 東京지사 편집국차장)△岸田誠吾(新潟日報 편집국장)△溫井申六(北國新聞 편집국장)△市橋一雄(岐阜日日新聞 편집총무)△野村啓一(京都新聞 편집국차장)△黒田光男(神戸新聞 편집국차장)△松岡良 明(山陽新聞 편집국장)△杉本清(徳島新聞 편집국장)△野口光敏(愛媛新聞 편집국장)△鈴木勉(四國新聞 편집국장)△市丸英二(西日本新聞 외신부장)△山田讓二(河北新聞 논설위원)△山田年榮(日本新聞協會 편집과장)

④ 72년 일본 언론인 4명 초청

1972년 6월과 11월 일본 신문인 4명을 초청, 국내 언론계 및 산업시설 등을 시찰케 하고 정부요로와도 접촉을 갖게 했다.

◇초청인사 명단

△高田秀二(共同通信 상무)△石黒英一(産經新聞 편집국장)△白神勲(讀賣新聞 논설위원)△野上正(朝日新聞 논설위원)

⑤ 85년 일본 스포츠신문 편집국장단 7명 안내

86아시아 게임 및 88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을 취재하기 위해 1985년 9월 16일 내한한 일본 스포츠신문 편집국장단(7명)의 취재활동(5일간)을 협조했다.

◇방한 일본언론인 명단

△近藤俊一郎(産經스포츠新聞 편집국장)△遠藤德貞(報知新聞 편집국장)△三浦勝男(日刊스포츠新聞社 편집국장)△佐藤毅(東京中日스포츠 편집국장)△佐藤敬(테일리스포츠 東京본사 편집국장)△宝子山幸允(日本新聞協會 편집주관)△荒井恒生(스포츠日本新聞 東京본사 편집국장)

(3) 자유중국 언론인 초청

① 66년 자유중국신문편집인 7명 초청

1966년 6월, 한중양국 언론인들의 친선을 위해 자유중국 신문 편집인 7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언론계를 비롯하여 산업시설을 시찰 고적 등을 관람했으며 우리측 언론계 인사들과 만나 우의를 깊이 했다.

◇방한 자유중국 언론인 명단

△丁維棟(英文中國日報 부사장= 단장)△夏承楹(國語日報 부사장)△臧遠侯(徵信新聞 총편집) △鍾鼎文(自立晚報 주필)△冷楓(中華日報 주필)△潘斌(大華晚報 총편집)△謝天衢(青年戰士報 총편집)

② 77년 자유중국 언론인 8명 초청

1977년 8월 자유중국 언론인 8명을 초청, 한중언론인간의 우의를 깊게 했다. 일행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머물렀다.

◇방한 자유중국 언론인 명단

△常崇實(編協秘書長 中國時報總編輯 단장)△張作錦(聯合報總編輯)△憑愛群(中華日報總綜編輯)△吳博全(經濟日報董事長特別助理)△葉燕翼(臺灣新聞報總編輯)△段守愚(大華晚報副總編輯)△羊汝德(國語日報總編輯)△馬驥伸(中央社編輯部主任)

(4) 월남 언론인 18명 초청

한월양국 언론인들의 친선을 위해 1967년 2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월남 언론인 18명을 초청, 양국 언론인 사이의 우의를 두텁게 했다.

◇방한 월남 언론인 명단

△Maio Tran Van An(Min of Inf. & Open Armes)△Chu Van Binh(Song)△Nguyen Kim Cang(Tin som)△Nguyen Dinh Tu(Chinh Luan)△Quan Quang Hoa(Doi Thoai)△Tran Viet Ky(VN Television)△Tran Tan Ngoc(Dan Tien)△Huynh Ngoc Pho(Tieng Viet)△Pham Van Pho(Tu Do)△Phan Lac Phuc(Tien Tuyen)△Dang Van Nham(Tien)△Nguyen Bao Si(VN Radio)△Nghiem Xuan Thien(Thoi Luan)△Vo Van Ung(Binh Minh)△Tran Duc Xuong(Saigon Bao)△Ngo Cong Du(VN Press)△Nguyen Bich Thu(Vn Radio)△Vo Thi Hoai Trinh(Thoi The)

3) 시찰단 등 해외파견

(1) 구미 시찰단 파견

1962년 5월, 아시아 재단의 후원을 얻어 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일간신문 통신사의 경제기자 및 경제 담당 논설위원 가운데서 5명을 선발, 해외 경제시찰단을 구성 파견했다.

시찰단은 이해 11월 12일 출발, 동남아, 중동,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 계획 상황을 시찰하고 63년 2월 7일 귀국했다. 이를 계기로 이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시찰단의 보고회를 열었다.

◇시찰단 명단

△李烈模(조선일보 논설위원)△金鎮炫(동아일보 기자)△金聖鎭(동양통신 기자)△金旭英(산업경제신문 논설위원)△鄭道賢(서울경제신문 기자)

(2) 동남아 시찰단 파견

1966년 12월, 성곡언론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각 신문·통신사 주필, 편집국장 및 방송국 간부 등 15명으로 동남아 시찰단을 구성하여 파견했다. 시찰단은 12월 5일부터 15일 동안 주월한국군부대의 위문을 비롯 태국, 자유중국, 홍콩, 일본 등의 언론계를 시찰했다.

◇시찰단 명단

△崔錫采(회장 조선일보 주필 단장)△千寬宇(부회장 동아일보 주필)△元瓊洙(운영위원장 동양통신 상무)△全玟昊(서울신문 편집국장)△洪性鳳(중앙일보 주필)△洪惟善(운영위원 한국일보 편집국장)△姜永壽(운영위원 대한일보 주필)△金昌式(운영위원 국제신보 편집국장)△金基顯(심사위원 영남일보 편집국장)△李恩雨(운영위원 동화통신편집국장)△朴商鎰(경향신문 주필)△朴澈(운영위원 전남 매일신문 편집국장)△嚴甲龍(운영위원 합동통신 편집국장)△任宅根(문화방송국 상무)△朴鴻緒(사무국장)

(3) 일본시찰단 파견

① 64년 편집간부 14명 일본시찰

1964년 11월, 일본신문협회초청으로 중앙 각 신문 통신사의 주필, 운영위원, 편집국장, 편협간부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일본 시찰단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

주간에 걸쳐 일본의 언론계 및 산업, 교육 등의 시설과 농촌을 돌아보았다. 특히 시찰단은 교포들의 산업·교육시설 등을 시찰하고 그 실태를 살폈다.

◇시찰단 명단

△高在旭(회장 동아일보 부사장 겸 주필 단장)△崔錫采(부회장 조선일보 논설위원)△姜永壽(운영위원장 대한일보 전무 겸 주필)△桂光吉(대한공론사 논설위원)△金光涉(회원심사위원 합동통신 편집국장)△金東極(동화통신 전무)△閔載禎(보도자유위원장 경향신문 편집국장)△朴鴻緒(운영위원 총무)△劉鳳榮(조선일보 부사장 겸 주필)△柳光烈(한국일보 논설위원)△元瓊洙(운영위원 동양통신 편집국장)△朱源(서울신문 주필)△千寬宇(운영위원 동아일보 편집국장)△洪惟善(운영위원 한국일보 편집국장)

② 70년 편집간부 15명 일본시찰

1970년 3월, 일본 大阪에서 개최되는「엑스포70」에 일본신문협회 초청으로 편집간부 15명이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참관했다.

◇시찰단 명단

△姜永壽(대한일보사 주필 단장)△具然默(동아일보사 편집부국장)△金光涉(합동통신사 편집담당상무)△金昇漢(중앙일보사 논설주필)△金榮湖(전북일보사 논설위원)△金洪喆(서울신문사 논설위원)△白再基(매일신문사 논설위원)△宋智淳(대전일보사 논설위원)△芮庸海(한국일보사 논설위원)△柳錫弼(동양통신사 기획심사위원)△鄭雲宗(신아일보사 논설위원)△趙德松(조선일보사 편집부국장)△崔致根(경향신문사 편집부국장)△洪一海(동화통신사 편집위원)△朴鴻緒(편협 사무국장)

③ 일본 외무성 초청 언론인 방일단 파견

1984년 8월 全斗煥 대통령의 공식 방일에 앞서 일본 정부의 관례에 따라 초청된 방일언론인단 17명은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이었었는데 일행은 총리 및

아베외상과 회견을 가지는 한편 일본 자위대도 시찰했다.

◇시찰단 명단

△金成斗(조선일보 논설위원 단장)△宋孝彬(한국일보 논설위원)△崔洛東(경향신문
경제부장 겸 논설위원)△洪仁根(동아일보 정치부장)△劉洪洛(서울신문 편집부국장)
△崔禹錫(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金榮一(연합통신 편집부국장)△韓東熙(매
일경제신문 정경부장)△宋忠燮(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金命植(코리아타임스 정
치부장)△尹益漢(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金春吉(충청일보 사회부장)△孫錫琦(대구
매일신문 논설위원)△黃潤植(부산일보 편집부국장)△朴圭德(전북일보 부주필)△全政
治(KBS 국제정치담당)△河永錫(MBC 정치부장)

(4) 월남시찰단 파견

1967년 8월, 성곡언론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 일간신문 통신사 외신부장 17명으
로 월남 시찰단을 구성, 파견했다. 이 시찰은 월남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찰
단은 8월 1일 출발 10일 동안 월남 언론계를 비롯, 주월 한국군 작전지역을 두루 시
찰했다.

◇시찰단 명단

△朴明燦(서울신문사 외신부장 단장)△姜斗淳(대한일보 외신부장)△金承祿(매일경제
신문 편집국장)△金顯甲(합동통신 외신부차장)△金興俊(코리아헤럴드 외신부장)△朴
京穆(중앙일보 외신부장)△朴興遠(동아일보 외신부차장)△徐翰鍾(전남일보사 사회부
장)△李圭殷(신아일보 편집부장)△李貞雨(동화통신 특신부장)△全南錫(경향신문 외
신부기자)△鄭璟嬉(한국일보 외신부차장)△鄭元洙(조선일보 외신부차장)△陳奉天(동
양통신 외신부차장)△崔周植(부산일보 논설위원)△李鐘勳(공보부 보도과=수행원)△
禹相宰(편협간사=수행원)